

출장결과보고서

제34차 국제영향평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참석

2014년 4월

작성자: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34차 국제영향평가학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영향평가”와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과 영향평가” 주제발표, 아시아의 전략환경평가 토론 좌장 및 IAPA 학술지 편집위원회 참석
- 출장국 및 기간: 칠레 비나델마, 2014. 4. 4 - 4. 14
- 출장자: 기획조정연구실장 정종관
- 참가국: 약 65개국 850명(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국립환경과학원 김명진, 이재운, KEI 최상기, 맹준호, 이영수, 전동준, UNEP 이윤애 등 9명) 참석하여 108개 분야 372편 주제발표, 27편 포스터 발표

2. 일정별 출장 결과

가. 4월 4일: 인천 출발

나. 4월 5일: 칠레 비나델마 도착(달라스, 산티아고 경유)

다. 4월 8일(화)

- 등록 및 IAIA 사무국 Jennifer 등 상견례

- 편집위원회: SSCI 저널등록 결과는 연말에 확정, 학회지 중국어 등 번역은 온라인 상의 초록에 국한, 새 편집위원 승인, 새 편집인 선정에 노력.

- 개회식(환영사 및 기조연설)

- 환영사(Vina del Mar 시장, Virginia Reginato Bozzo): 환경적으로 건전한 아름다운 도시인 비나델마에서 개최되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창조적 모임이 되고 최상의 성공을 기대.

- 개회사(칠레 환경부장관, Pablo Badenier):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영향평가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며 규모 8.2의 지진 상황에서 참석한 여러분께 감사. 칠레와 남미의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공정성을 줄 수 있는 영향평가가 되도록 경험과 지식이 체계적으로 교류되기를 바람.

- 기조연설(IDB 국장, Janine Ferretti): 기반시설은 경제성장의 근본이 되고 있다. 투자와 성장욕구의 차이 극복을 위해 남미에는 매년 2500억불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편익과 빈곤해소에 기여하지만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3에 지속

성 보고서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필요.

- 지구환경상(Global Environment Award)은 하버드대 John Ruggie 교수가 영향평가에서 인권을 고려하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지침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 기조연설(하버드대 교수, John Ruggie): 지속성은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속성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인터넷기술 등의 발전이 영향평가에 기여할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인 영향평가가 인권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 환영사(IAIA 회장, Greg Radford): 지진, 남미 개최 등으로 참가자를 걱정하였지만 60개국 이상 8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여 기쁘게 생각하고, 영향평가에서 지역과 지구의 능력 발전을 증진시키는 국제 포럼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10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재개발 관련 특별 회의도 많은 참가를 바람.
- 환영사(칠레 환경부 전략환경평가국장, Jorge Troncoso): 남미에서 사회경제적 개발의 지혜로운 대안이 설정되도록 경험과 사례연구들이 잘 교류되기를 희망.

○ 주제포럼(영향평가에서 국제표준의 역할)

- 환경영향평가(EIA)와 환경준수와 규제(ECE) 제도에 대한 역할은 환경관리 체계를 공공부문, 평가자와 연대, 국제금융기관을 통해서 개선해가고 있다. 남미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생물다양성보전규제, 오염조절규제,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대체가 되었다.
- 남미에서 풍력발전의 성공적 개발이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투자하는 적도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경제개발은 환경사회영향평가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누적영향평가와 생태계 파괴에 따른 생태복원 사업이 중요시 되고 있다. 광산업 등과 관련하여 국내기준 뿐 아니라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기준 준수도 필요하다. 풍력발전 경우 서식지 보호를 위해 송전선의 곡선화, 접근로 건설로 인한 생태계파괴, 소음 등 건강문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포스터 및 영상발표

- 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영향평가” 포스터 및 영상 발표에서 한국의 최근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합법, 개발예정지 자연생태계 조사서비스,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등을 활용한 자연마당 사업 등의 소개와 내용들에 관심 표명.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분과 토론

- 2013년 워싱턴 특별심포지엄 개최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회원 관심 높으며, 6월 초 런던서 개최되는 생태복원 관련 회의에서도 좋은 결과 기대. 생태이슈들이 하위계획, 비용편익분석에 생태계 서비스 차원에서 포함되도록 노력

○ 주제발표 세션(환경영향의 사회적 차원 평가)

- 정책, 계획, 사업의 생물·물리적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의 상호 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통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한 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물정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과 인간복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인식조사를 통해 장기 지역영향평가를 시도하였다.

○ 주제발표 세션(아시아 SEA, EIA, 생태계서비스)

- 하구역 생태복원의 영향평가는 장기 지역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본은 풍력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에 2010.2에 규정하였고, 등급 1 10MW이상, 등급2 7.5-10MW로 구분하였고, 소음진동, 경관훼손, 조류충돌, 접근로의 생태계파괴 문제 등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해안가나 바다에 풍력발전을 검토 중이며 9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취소되었다.

○ 토론 세션(영향평가와 수생태복원: 생물다양성, 기능, 서비스)

- 수생태의 잃고 얻는 것의 평가와 영향 측정을 위한 복원의 경험, 수생태 서식지 보전과 회복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미국 EPA 급속 생물평가조서(Rapid Bioassessment Protocol)에 방안 등이 있고 1. 보전기금 2. 서식지보전계획 3. 전문가 완화대책 등이며 경험상으로는 자발적 접근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지부회의(Affiliates Forum)

- 이란이 지부에 가입하여 16개 지부가 되었고, 지부 회원들은 IAIA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전달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IAIAConnect는 지부 회원들 참여 가능
- 한국의 활동 상황은 중국, 일본 이외에 홍콩,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과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동북아 지역의 핵심 역할 소개
- 지부 모임이 활성화 될 때 IAIA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 등은 메일 혹은 비디오 등을 통해 공유하도록 노력 필요

라. 4월 9일(수)

○ 주제포럼(환경평가를 위한 규제에서 새로운 과제)

- 뉴질랜드에서 규제영향평가는 경제학자를 위한 협의의 도구 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평가 사회에 기여가 필요하다. 2013년 포르투갈 EIA 규정은 계획설계와 세부설계 2단계로 구분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 가나에서 영향평가 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을 위한 주요 도구이지만 행정절차가 남용되고 사회경제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는 투명한 절차와 불확실성의 존재로 여러 단계에서 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할 필요 있다.

○ 주제발표 세션(빙하와 환경영향평가)

- 빙하상태의 산 주변의 보호와 불확실성 고려하여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필요하다. 안데스 산맥의 빙하는 중장기적으로 편익을 주고 있고 사업계획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적이다.
- 보통 사업대상지는 1년 조사를 하지만 빙하지역 지하수는 3년 조사를 해야 영향평가가 가능하다.

○ 총회참석

- 2012년 포르토 회의는 94개국, 2013년 켈거리는 75개국, 2014년은 약 65개국 참석으로 참여국가수는 감소. 2013년 정회원은 1,841명으로 북 및 중미가 44%, 유럽 18%, 아프리카 16%, 아시아 9%로 나타났다.
- 2013 수입 1,518,063불 지출 1,190,267불로 순수입은 327,796불

- Rose-Hulman Award는 오스트레일리아 Lex Brown이 수상

○ 주제발표 세션(적합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지표I)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BES) 생태발자국 활동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형화된 방법은 없다. 가능한 방법이나 BES 접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 200만 거주하는 일본 제3의 도시인 나고야는 70%가 이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조사를 토대로 도시림의 종합적인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평가 연구를 수행중이다. JICA 지원 사업 경우 서식지와 생물다양성 영향평가를 위한 새로운 안전지침서를 작성하였다. 교육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 주제발표 세션(적합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지표II)

- IFC PS6은 국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핵심 서식지를 규명하고 지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나 지역의 우선순위하고는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 최근 영향평가에서 생태계서비스를 다룬 5개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분석은 주로 다른 주제들에 통합되어 있고 추가적인 영향이나 완화대책시 서술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칠레 야생식물종의 80%는 벌 등의 受粉작용에 의존하고 있다. 435종의 벌 종류가 있는데 70%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벌은 야생상태에서는 토양에 등지를 갖으며 풍력발전은 악영향을 미치는데 벌다른 저감 대책이 없다.

○ 토론 세션(지역의 진보된 완화계획(RAMP) 프로그램의 생물다양성 고려)

- IUCN 방향은 생태계 손실이 없는(No Net Loss) 순증영향의 생태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상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없는 지역에서 지역에 기반한 사토야마뱅크를 발전시키고 있다.

마. 4월 10일(목)

○ 주제포럼/토론회(단순한 환경영향평가는 어리석은가?)

- 출장자는 이 포럼에서 초청 발표로 “우리가 원하는 영향평가”에 대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주안점을 두고 “Rio+20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서 강조한 것처럼 소외계층과 관계자 참가 기회 확대와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별로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과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갈 것을 강조.(Myungjin Kim & Charlie Wolf, 2014, IAPA 32(1):19-20, 토론 논문 근거)

- 이 토론회에서는 영향평가 발전을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 개별 평가도 결국엔 통합되어야 하며,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 스테이플, 여러 주머니를 한군데 모으는 통합주머니, 여러 재료들로 만들어진 케이크,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종합병원으로 비유.

○ 주제발표 세션(2010 칠레지진: 지속가능한 회복에 영향평가의 영향)

- 뉴질랜드 지진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가능한 회복 과정을 이용한 칠레의 재해 영향받은 지역을 신속환경영향평가로 평가하고 회복 계획수립

○ 주제발표 세션(감시, 모니터링, 사후관리: 실제, 절차, 기법)

- 미국 EPA는 신기술을 이용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대기오염 물질과 녹조의 발생 등 실시간 측정을 통해 오염 여부준수, 효율성, 개선된 보호대책, 주민인식증진 등을 유도할 수 있다.

○ 주제발표 세션(도시와 지역 경관에서의 문화 유산)

- 노르웨이 정부 사업에서는 개발전략과 과정 도구로서 유럽경관협약(European Landscape Convention)을 활용하고 있다. 도시의 지속성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도 활용하고 있다.
- 칠레는 1973년 카스트로와 사회주의를 공유하였고 정치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환경정책이 발전되어 왔다. 1999년 칠레는 큰 변혁을 하였고 세계유산 관리, 생태관광에서 변화가 있었고 지진재해 등을 저감하기 위한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 주제발표 세션(기후변화와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은 아직 영향평가에서는 새로운 분야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칠레 북부 안데스 산맥에서 기후변화 기록을 이용해 지역토지관리와 지역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 네덜란드에서는 2008년 델타위원회에서 델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물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바. 4월 11일(금)

○ 토론회(No Net Loss)

- 완화대책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순 손실 없음”과 통합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금년 6월에 런던서 “생물다양성의 순 손실 없음과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 no net loss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계획 또한 중요하다.
- 성공적인 순 손실 없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전계획지역의 선정, 영향들 형태 선택, 보전가치 요소들의 규명, 명확한 보전 목표의 개발, 완전한 완화대책의 이용, 완화대책 대안과 보상전략의 개발, 명확한 실행 및 모니터링 계획이 필요하다.
- 순 손실 없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방법론의 개발, 생물다양성에 근거한 자료, 완화대책 순위결정, 지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 생물다양성 영향평가는 효과적인가? 도전과 기회가 존재한다. 보상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활동중심과 종 중심의 보상에 따라 틀리다.

○ 시상식 및 폐회식

- 전 학회장 Luis는 이번 학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버넌스(통치행위)에서 사회 책임성을 위한 거버넌스, 평가 도구 구성 한 가지 요소로서의 EIA, 의사결정, 법적 허용 수단으로의 EIA 등을 하였다. EIA 목적은 빈곤감소, 환경사회 공평성 갈등해결, 개발승인, 환경보호이며, EIA 검토는 공공책임성 하의 의사 결정, 공정성과 차별성, 정밀성과 속도에 있고, EIA 분량 과다, 사안의 핵심성 부족 등이 있어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방안 필요.
- CSR(기업경영책임)은 조사, 참여, 위험평가, 계획제안, 평가 절차 시행을 통해 중점평가, 상관성, 잘 형성된 EIA 평가서, 삶의 질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는 건강, 변화, 행복, 생물다양성 상쇄 형평성, 불확실성, 모니터링으로 구성.
- Corporate Initiative Award는 광산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한 공로로 ICMC(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 Metals)가 수상. Institutional Award는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Regional Award는 Instituto Brasileiro do Meio Ambiente e dos

Recursos Naturais 선정

- 최우수논문으로 Edwina A. Loxton, Jacki Schirmer, Peter Kanowski, Exploring the social dimensions and complexity of cumulative impacts: a case study of forest policy changes in Western Australia, 2013, IAPA 31(1) 선정
- IAIA15는 2015년 4월 18-24일 “디지털 시대의 영향평가”를 주제로 유럽 문명의 발산지인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개최하며, 새로운 기술에 접목한 영향평가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예상됨. 한국도 세션 등을 주도하여 국내외적으로 현안이 되는 문제들을 발굴하여 외국 전문가들과의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
- 차기학회장(Miguel Coutinho)은 IAIA 발전을 회상하며 회원, 지부, 국가 구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이익되는 집단으로 거듭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 회원과 일반 회원의 의사소통 공유의 필요성 역설

사. 4월 12일(토) 연구견학

<라캄파나(La Campana) 국립공원>

- 칠레 중부에 위치하며 산티아고 110km, 발파라이소에서 60km 거리에 있음. 1984년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834년에는 찰스다윈이 이 산에 올라 식생을 조사하였다. 다윈은 정상에서의 안데스산 맥(Aconcagua 6,962m)과 태평양 조망의 멋진 경관을 기술하였다.
- 멸종위기종인 칠레야자수(*Jubaea chilensis*) 서식지이며 545종의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선인장(*Eriosyce garaventa*), 수선화(*Placea ornato*), 참나무류(*Nothofagus macrocarpa*) 등과 동물은 123종으로 아르헨티나회색여우(*Grey Zorro*), 이구아나(*Liolaemus nigroviridis*), 딱따구리(*Veniliornis lignarius*), 벌새(*Patagona gigas*) 등이 서식하고 있다.
- 세지역으로 구분하여 6개 산책길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인 라캄파나(1,920m)는 입구서 왕복 14km 이다. 성인 1인당 입장료는 5불(2500 칠레 페소)이며 입구 화장실에 샤워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전을 위해 연락처 기록과 방문자 배낭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금광 폐광산의 흔적이 남아 있고 1550m 부근에 찰스다윈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다. 1500m 이상부터 정상까지는 돌무더기(轉石) 지대와 암봉으로 되어 있음.

- 7월 18일자 사이언스 데일리에 영국 뉴캐슬대학교가 주축이 된 국제공동 연구팀이 수행한 따개비 연구 결과가 실렸다.
-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이 바위에 달라붙은 따개비를 관찰하고 기록한 이후 150년도 더 흐른 후 드디어 과학자들이 따개비가 어떻게 바위에 단단하게 달라붙을 수 있는지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동안 따개비의 부착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 따개비의 부착력은 참 대단하다. 물이 묻어있는 울퉁불퉁한 바위 표면에 그 어떤 세찬 파도도 견뎌내며 찰거머리처럼 붙어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이에 따개비가 물에 젖은 표면에 어떻게 달라붙을 수 있는지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였다. 이것만 알아내면 물속이나 젖은 표면에서도 쓸 수 있는 접착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개비는 노플리우스와 시프러스라는 2종류의 유생시기를 거쳐 성체가 된다. 어른일 때는 단단한 표면에 달라붙어 살지만 어린 시기에는 플랑크톤 생활을 하며 이동이 가능하다.
- 시프러스 유생시기가 되면 이제 어디에 정착하여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적절한 장소를 찾으면 접착물질을 분비하여 달라붙게 된다.
- 따개비 유생은 단백질에 인산이 공유결합을 한 복합단백질인 인단백질(phosphoprotein) 성분의 접착물질을 사용해 표면에 달라붙는다. 그런데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부착할 표면의 물을 제거하려고 기름방울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연구팀이 광자현미경을 이용한 첨단 영상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따개비가 달라붙는 과정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이다.
- 연구팀은 이번 발견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합성 생체접착제 개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선박에 부착생물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칠하는 방오페인트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물류업계에서는 선박에 달라붙는 따개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부착생물로 인해 입는

경제적인 손실은 세계적으로 약 7조500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 따개비를 비롯한 부착생물이 선체에 달라붙으면 마찰저항이 커져서 그만큼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결국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개비의 생체접착제가 붙지 못하는 방오페인트를 만든다면 해운업계에 큰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 4월 12일(토) 산티아고 출발, 달라스 경유하여 4월 14일(월) 인천 도착

3. 관찰 및 건의 사항

- 미국 환경청(EPA), 일본 환경성 환경영향평가 담당 과장등과 면담을 통하여 현안이 되는 제도 개선 관련한 에너지사업, 사후관리 등의 환경 저감방안 등의 내용을 교류하기로 함. 일본 환경성은 한중일 학회 등을 발전시켜 아시아 환경영향평가 포럼으로 확대 방안을 제안
- 민관공동통치(governance) 행위는 영향평가의 새로운 주제이며, 영향평가 목적은 빈곤감소, 환경평등, 갈등해소, 환경보호에 있으며 많은 분량의 평가

를 지양한 중점적인 평가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론 개발 필요.

- 한국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중심으로 지부 활동과 학술적 활동 외에, 정부 및 과학원 차원에서도 영향평가 분야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한국의 선진된 제도와 방법을 국제사회에 홍보와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입지를 높여야 함.
- 4차 한중일 학회(2014.11.13.-14 중국 광저우) 관련하여 주제와 학생 참가 확대방안 등 협의하였고, 동북아 학회로 확대를 위해 베트남 등 주변국의 참여 방안도 모색하기로 함.
- 총 16개국 IAIA Affiliate 회의에 참가하여 4차 한중일 개최와 2014년 봄 제주학회, 가을 평창학회와 CBD 개최 소개
- IAIA 창립회원이며 전학회장인 울프교수는 “한국평가(Assessing Korea)” 연구 주요 결과를 인쇄할 예정이며, 2014년 10월 평창서 개최되는 가을학회서 주요 결과 발표의사 전달.
- IAIA는 비정부 학술단체로는 125개국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개발,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과 관련한 사회경제, 환경 등의 영향평가를 선도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2002년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전략환경평가, 건강영향평가, 생태영향평가를 각국이 실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각국은 이 단체를 통해 국가의 격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에 주도권을 가지려 함.
- 국제학회 전문가들과 지속적 교류를 통해 전략환경평가, 생태영향평가, 생태계서비스, 생태복원, 기후변화와 영향평가 분야 등의 지속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연구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개요

-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의 125개국의 2500명 세계적 전문가와 UN, UNEP, World Bank, ADB 등의 국제기구가 협력하는 민간 그룹으로

1980년 설립(미국에 본부)

- 2002 세계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전략환경평가, 보건영향평가 등 수행 지침 제시와 Rio+20 전략 작성
- 참가자 정종관은 정회원, 2007년 IAIA(서울) 준비위원, 2010-2013 IAIA위원, IAIA Affiliate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2-2013년 회장, 2014년-명예회장 및 편집위원

5. 수집자료

- 1) IAIA14 최종프로그램
- 2) Edwina A. Loxton, Jacki Schirmer, Peter Kanowski, Exploring the social dimensions and complexity of cumulative impacts: a case study of forest policy changes in Western Australia, 2013, IAPA 31(1)
- 3) IAIA 2013 Annual report 등